



1 사랑의 S-BOX 전달  
2 희망 장학금 수여  
3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



## 광주신세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광주신세계는 1995년 개점부터 ‘지역과의 동반성장’이라는 기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학사업, ‘희망 배달 캠페인’, 현지 바이어제도 등을 시행 중이다.

광주신세계는 지역 기업과 지역 제품 활성화, 나눔 경영, 지역 상생 활동, 문화후원, 친환경 활동 등의 지역 친화 사업을 구체적인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으로 발전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초록우산 어린이 장학재단’, ‘서구장학재단’ 등 장학재단과 지역 관공서에 약 1억3천만원의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24년간 지역인재 2천600여명에게 총 27억원을 후원했다. 장학금은 저소득층(결손 자녀), 관공서 추천 선행 및 봉사활동 우수자, 전통시장 상인 자녀 등에 전달됐다.

지역의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나눔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서구청, 4개 복지관(금호, 쌍촌, 무진, 시영)과 ‘사랑의 S-BOX’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양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결손가정과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이 담긴 식품 패키지 박스를 전달한다.

2018년 1월에는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위생용품을 기부했다. 2차 성장 과정에 필요한 보호자의 도움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부였다.

현지 바이어 제도를 통한 지역 산지 판로 확대와 동반성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개점 초기부터 현지 바이어 제도를 통해 호남 지역의 산지와 생산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산지 직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산지 직거래를 통해 15억원가량의 신선식품(농산·축산·수산)을 사들였고, 이는 전체 신선식품 매입액의 80%를 차지한다.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완도 덕우도 활 전복’과 ‘담양 유정란’ 등이 현지 바이어를 통해 발굴한 대표 품목으로

꼽힌다. 지난해 연말에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을 하고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광주신세계 희망 산타 원정대’는 17회째를 맞는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보육 시설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해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 주 35시간 근무제로 ‘워라밸’ 문화선도

광주신세계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워라밸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이 우선돼야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행됐다. 늘어난 여유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직원들은 헬스, 수영,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영어 회화나 제2외국어 수업을 듣는 등 자기계발에도 힘쓰고 있다.

전체 직원의 62%를 차지하는 워킹맘은 주 35시간 근무제가 가장 값진 선물이 됐다.

주 35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있었다. 정시퇴근 정착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PC오프제, 집중근무시간제, 회의 시간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PC오프제를 통해 퇴근 시간 이후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져 야근을 막았고, 업무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간단한 구두 보고나 메모 보고를 활성화했다. 회의 시간은 가급적 30분, 최대 1시간 내로 간소화했다. 집중 근무시간을 통해 최대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업무처리 방식 개선과 구조혁신을 통해 빠르게 정착됐다.

광주신세계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돕고, 다양한 직원 복지 활동을 통해 ‘임직원이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